

##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

눈이 많은 환경이 사람들의 문화를 형성해 온 한편으로 사람들 또한 설국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도카마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간 지역 계단식 논이자 풍경이 아름다운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이 전형적인 실증 사례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수백 년에 걸쳐 마쓰노야마 지역에서 산비탈을 개간해 패치워크 모양의 평지로 조성한 약 200여 개의 논에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은 농림수산성의 ‘이어가는 계단식 논 유산~고향의 자랑을 미래로~’에도 선정되어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계단식 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쌀 품종인 습전 벼(습지에 적합한 벼 품종)는 생육에 물이 고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논이라고 불리는 관수된 경지에서 재배됩니다. 논이 평지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주로 인근 하천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한편, 계단식 논에서는 중력에 의해 물을 아래로 흐르게 하기 위해 수원을 산 위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시토게를 비롯한 도카마치의 계단식 논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을 빗물, 지하수, 해빙수 등 하천 이외의 수원에서 공급받습니다.

마쓰노야마 산 정상에 있는 너도밤나무 숲은 천연의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두껍고 깊은 나무뿌리와 낙엽이 쌓인 양질의 토양층이 눈이 녹은 물이나 빗물을 흡수하고 보존합니다. 농부들은 이 자연 보수력을 이용해 산비탈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이를 아래쪽 논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지형과 수로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는 동시에 중요한 생태계도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잠자리는 여름철 더운 시기를 산에서 보내다가 가을이 되면 계단식 논에 알을 낳습니다.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은 이 곤충의 대규모 개체군을 위해 이 2가지 환경이 가까이 공존하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성장한 잠자리는 이번에는 물을 채워놓은 논에서 번식하는 개구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다시 뱀이나 맹금류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이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길, 지형적 특성, 기후적 요소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계단식 논에서의 농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경사진 땅과 불규칙한 모양의 논에서는 기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계단식 논이 방치되거나 포기되고 있습니다. 호시토게를 포함한 도카마치의 계단식 논은 공동소유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 논의 지속적인 경작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수확한 쌀을 받습니다. 회원들은 모내기나 수확에 참여하고, 농부들에게 눈이 많은 지역의 전통 생활방법을 배우면서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